

보도시점 2025. 9. 30.(화) 12:00 / 배포 2025. 9. 30.(화) 08:30  
<10. 1.(수) 조간>

## 마일리지 통합방안(안) 의견청취 실시

- 10년 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 -
-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전환비율 적용 -
- 대국민 의견수렴 및 공정위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 1. 개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하여 2025. 9. 30.(화)부터 2025. 10. 13.(월)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2022. 5. 9.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2024. 12. 12.)로부터 6개월 이내(2025. 6. 12.)에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합병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5. 6. 12.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통합방안(안)은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공정위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였다.

#### 【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원칙 】

-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것

이후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025.9.25.(목) 수정된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안)이 공정위가 제시한 통합방안 마련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2. 마일리지 통합방안(안) 주요내용

### 【 ①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 】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을 계획 중에 있는데, 양사의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처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양사가 합병하여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각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합병에 따라 양사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양사가 취항하는 노선 모두에 대해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신청 가능

아울러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12.12.)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예) 유럽 여행을 위해 수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아온 A씨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다. 그러나 별도 관리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일리지 손해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오히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간대와 도착지가 다양해져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었다.

**【 ② 마일리지 전환비율 =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

한편, 별도 관리를 적용받지 않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 1 : 1, 제휴 마일리지\*\* 1 : 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된다.

\*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하는 것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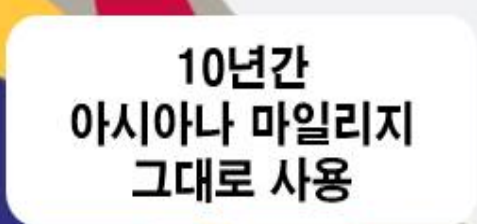

\*\* <탑승 마일리지> 소비자가 항공사 **항공편의 구매·탑승**을 통해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휴 마일리지> 소비자가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의 구매·이용**을 통해 적립하는 마일리지(예: 제휴 신용카드 등)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비율을 1 : 1로 하였다. 또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에서 1 : 0.82를 전환비율로 하였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 중 자신에게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예)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B씨는 보너스항공권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올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보유한 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적립 1만, 제휴 적립 1만)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전환 후 대한항공 78,200마일)하여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비자들의 선택권 】**

마일리지 유지 시(원칙)	마일리지 전환 시(선택)
 <p><b>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사용</b></p>	 <p><b>(탑승) 1 : 1 (제휴) 1 : 0.82</b></p>

**【 ③ 우수회원등급 및 혜택 유지 】**

양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각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한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회원등급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이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 회원등급 재심사를 위한 양사 마일리지 합산시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비율 적용 없이 단순 합산 예정

**【 아시아나 우수회원 → 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 】**

아시아나항공(OZ)			대한항공(KE)		
우수회원등급	스타얼라이언스등급	자격기간	우수회원등급	스카이팀등급	자격기간
플래티늄	골드	평생	밀리언마일러	엘리트플러스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	골드	평생	모닝컴프리미엄	엘리트플러스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	골드	24개월	모닝컴셀렉트 (신설예정)	엘리트플러스	24개월
다이아몬드	골드	24개월	모닝컴	엘리트	24개월
골드	실버	24개월			

**【 전환 신청 시 등급 부여 예시 】**



#### 【 ④ 마일리지 공급가격 인상 제한 등 】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마일리지를 제휴 신용카드사에 판매하고 신용카드사는 구매한 마일리지로 신용카드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한 날(2024. 12. 12.)로부터 10년간 제휴카드사들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판매)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복수의 카드사들과 제휴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⑤ 복합결제 도입 】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한다. 아시아나는 양사 합병 전부터 복합결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항공운임의 30%까지 결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복합결제)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 3. 의견제출 방법 및 향후계획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5. 10.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및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은 <붙임2>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월)까지 추가·수정·보완 등의 의견과 그 이유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우: 30108)

\* 전자우편: airmna@korea.kr

- 붙임 1. 마일리지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2022.5.9.)  
 2. 의견제출 양식 (별첨)  
 3.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 (별첨)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책임자	과장	박설민	(044-200-4630)
		담당자	사무관	남용주	(044-200-4627)
			사무관	이태령	(044-200-4627)
			사무관	김범규	(044-200-4627)



1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건 결합으로 인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하 ‘최초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위 가.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시행일부터 기업결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마일리지 제도를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 가.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시행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제도를 2019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각각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